



국어	수학	영어	사회탐구	과학탐구	직업탐구	제2외국어 한문
----	----	----	------	------	------	-------------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영어 영역

■ 쉬운 수능 기초에 맞추어 평이하게 출제됨

1. 출제 경향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영어 영역은 듣기 17문항, 읽기 28문항이 출제되었다. 대학 수학에 필요한 영어 사용 능력과 2009 개정 영어과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제시된 교육 목표 및 내용의 습득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네 영역에서 다양한 소재의 지문과 대화를 제시하였고, 영어의 유창성뿐만 아니라 정확성을 강조하여 영어로 소통하는 데 필요한 어휘 및 문법 능력, 사실적 이해력, 추론적 이해력, 종합적 적용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들을 고루 출제하였다. EBS 교재에서 73.3%(33문항)가 연계되었는데, 듣기 및 말하기 문항의 경우 EBS 교재에 나온 대화/담화를 재구성하거나 소재, 그림 및 도표 등을 활용하여 15문항이 출제되었고, 읽기와 쓰기 문항의 경우에도 지문과 도표, 그리고 안내문을 활용하여 18문항이 출제되었다. 다만 교육부에서 발표한 ‘수능 출제요류 개선 방안(2015. 3. 31)’에 따라 학생들이 한글 해석본을 암기하여 시험을 준비하는 문제가 개선되도록 출제하였다.

1. EBS 연계 교재 4권에서 연계되어 73.3%(33문항)가 출제되었다.
2. 작년 수학능력시험에서 나온 유형들이 그대로 출제되었다.
3. 한글 해석본을 암기하여 시험을 준비하는 문제가 개선되도록 출제되었다.

2. 세부 출제 경향

1) 듣기 및 말하기

2015학년도 수능과 문항 수는 동일하며(17문항) 출제 유형 또한 그대로 유지되었다. 듣기 영역의 전체 17문항 중, 순수 듣기 문항은 12문항 출제되었으며 간접 말하기 문항은 5문항 출제되었다. 간접 말하기 문항은 짧은 대화 응답 2문항과 대화 응답 2문항, 담화 응답 1문항이 출제되었다. 순수 듣기 문항은 대화나 담화의 주제, 의견, 대화자의 관계 등에 대한 추론적·종합적 이해를 평가하는 문항이 3문항, 그림이나 담화·대화 내용 일치·5W1H와 같은 사실적 이해를 평가하는 문항이 7문항, 2문항 한 세트의 복합 문항이 출제되었다. 복합 문항 유형은 1대화·담화 1문항과 달리 두 번 들려주어 수험생의 시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였다. 복합 문항 유형인 16번과 17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EBS교재와 연계되어 출제되었으며, 일상생활에서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의 대화와 담화가 제시되어 출제되었다.

2) 어법 및 어휘

어법 문항은 밑줄 친 부분 중 어색한 것을 찾는 유형으로, 그리고 어휘 문항은 네모 안에서 문맥에 맞는 낱말을 고르는 유형으로 각각 1문항씩 출제되었으며, 둘 다 EBS 교재에서 연계되어 출제되었다. 28번 어법 문항은 3점 배점이었지만 핵심적인 영어 구문 지식을 철저히 익힌 학생들은 큰 어려움 없이 풀 수 있었으리라고 예상된다. 29번 어휘 문항은 글의 흐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문맥에 알맞은 어휘를 찾아야 풀 수 있는 문제로 기본적인 어휘를 학습하고 전체 글의 맥락을 파악하는 연습을 한 학생이라면 수월하게 풀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3) 읽기 및 쓰기

2015학년도 수능보다는 다소 쉽게 출제되었으며, 작년 6월 모의평가와 대체로 비슷한 난이도로 출제되었다. 33번 빈칸 추론 문항과 단일장문의 42번 빈칸 추론 문항은 EBS 교재와 연계되지도 않고 개념 이해와 논리적인 흐름 파악의 어려움으로 난도가 상대적으로 약간 높았지만, 나머지 빈칸 추론 문항들은 EBS 교재와 연계되었고 그 외의 문제들도 대체로 평이하게 출제되었다. 특히 읽기의 ‘대의 파악’과 ‘세부 정보 파악’을 묻는 문항의 경우는 EBS 문항의 지문과 소재 또는 주제가 유사한 다른 지문 등을 활용하되, 단어·문장 등이 쉬운 지문을 활용하여 연계되었으므로 연계교재를 열심히 공부하여 지문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학생들에게는 그리 어렵지 않았으리라 예상된다.

3. 난이도

※ 2015학년도 수능 / 2014년 6월 시행 모의평가와의 시험 체감 난이도 비교

영역	2015학년도 수능 비교	2014년 6월 시행 모의평가 비교
영어	다소 쉽다	대체로 비슷하다

전반적으로 2015학년도 수능보다 쉬우며, 작년 6월 모의평가와 난이도가 비슷하리라 예상된다. 작년 수능과 마찬가지로 변별력 있는 3점 10문항 중 3문항은 듣기 및 말하기 영역에서, 그리고 7문항은 읽기 및 쓰기 영역에서 출제되었다.

1) 듣기 및 말하기

전반적으로 난이도는 평이었다. 놀이동산 이용권 계산 문제로 Super Pass와 family discount coupon이라는 변수를 정확히 들어야 풀 수 있었던 9번 금액 계산 문항이 비교적 변별력이 높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외의 문항들은 정답의 단서가 될 수 있는 내용을 놓치지 않았다면 어렵지 않게 풀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2) 어법 및 어휘

어법 문항은 밑줄 친 부분 중 어색한 것을 찾는 유형으로, 그리고 어휘 문항은 네모 안에서 문맥에 맞는 낱말을 고르는 유형으로 각각 1문항씩 출제되었으며, 둘 다 EBS 교재에서 연계되어 출제되었다. 28번 어법 문항은 3점 배점이었지만 핵심적인 영어 구문 지식을 철저히 익힌 학생들은 큰 어려움 없이 풀 수 있었으리라 예상된다. 29번 어휘 문항은 글의 흐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문맥에 알맞은 어휘를 찾아야 풀 수 있는 문제로 기본적인 어휘를 학습하고 전체 글의 맥락을 파악하는 연습을 한 학생이라면 수월하게 풀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3) 읽기 및 쓰기

2015학년도 수능보다는 다소 쉽게 출제되었으며, 작년 6월 모의평가와 대체로 비슷한 난이도로 출제되었다. 33번 빈칸 추론 문항과 단일장문의 42번 빈칸 추론 문항은 EBS 교재와 연계되지도 않고 개념 이해와 논리적인 흐름 파악의 어려움으로 난도가 상대적으로 약간 높았지만, 나머지 빈칸 추론 문항들은 EBS 교재와 연계되었고 그 외의 문제들도 대체로 평이하게 출제되었다. 특히 읽기의 '대의 파악'과 '세부 정보 파악'을 묻는 문항의 경우는 EBS 문항의 지문과 소재 또는 주제가 유사한 다른 지문 등을 활용하되, 단어·문장 등이 쉬운 지문을 활용하여 연계되었으므로 연계교재를 열심히 공부하여 지문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학생들에게는 그리 어렵지 않았으리라 예상된다.

3. EBS 교재와의 연계성

문항번호	EBS 교재 연계 내용
	교재명/쪽수/문항번호(내용요소)
1	고교영어듣기/p.50/2번(할 일)
2	고교영어듣기/p.34/2번(화자의 심정)
3	고교영어듣기/p.164/7번(언급하지 않은 것)
4	고교영어듣기/p.44/1번(목적)
5	고교영어듣기/p.212/8번(이유)
6	고교영어듣기/p.40/1번(그림 불일치)
7	고교영어듣기/p.158/8번(언급하지 않은 것)
8	고교영어듣기/p.172/13번(마지막 응답)

문항번호	EBS 교재 연계 내용
	교재명/쪽수/문항번호(내용요소)
9	고교영어듣기/p.74/2번(숫자 정보)
10	고교영어듣기/p.199/4번(주제)
11	고교영어듣기/p.132/7-8번(1지문 2문항)
12	고교영어듣기/p.177/12번(도표)
13	고교영어듣기/p.194/7번(할 일)
14	고교영어듣기/p.146/7번(심정)
15	고교영어듣기/p.151/6번(관계)
18	영어독해연습1/p.61/6번(지칭 추론)
19	수능특강/p.42/5번(어휘)
22	영어독해연습1/p.134/20번(순서)
23	수능특강/p.146/2번(문장 삽입)
24	영어독해연습1/p.31/8번(도표)
25	수능특강/p.83/3번(연결사)
26	수능특강/p.59/5번(내용 일치)
27	수능특강/p.57/3번(내용 일치)
28	영어독해연습1/p.91/6번(순서)
29	영어독해연습2/p.95/2번(문장 삽입)
30	영어독해연습1/p.39./2번(심경)
31	수능특강/p.221/20번(순서)
32	영어독해연습2/p.118/1번(어법)
34	영어독해연습1/p.94/3번(문장 삽입)
35	수능특강/p.155/3번(주제)
36	영어독해연습1/p.130/16번(연결사)
37	영어독해연습2/p.28/7번(빈칸 추론)
39	영어독해연습1/p.88/3번(순서)

EBS 연계 교재를 꾸준히 학습한 학생들은 체감 연계도가 높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듣기 및 말하기 유형은 총 17문항 중 15문항이 <고교영어듣기>에서 개념 원리 및 지문 활용으로, 읽기 및 쓰기 유형은 28문항 중 18문항이 <수능특강>(7문항), <영어독해연습1>(8문항), <영어독해연습2>(3문항)에서 지문 활용 및 자료 활용으로 연계되어 출제되었다. 학생들이 한글 해석본을 암기해서 문항을 푸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 도입된 간접연계는 대의 파악 유형과 세부 정보 파악 유형에서 소재 및 주제를 활용하여 출제되었다. 이외의 유형은 지문을 그대로 활용하여 문항 유형만 바꾸어 출제되었다. EBS 교재의 문제를 단순히 푸는 데서 그치지 않고 내용을 충실히 이해한 학생들은 지문을 그대로 활용한 직접연계 문항뿐만 아니라 소재나 주제를 연계한 간접연계 문항도 어렵지 않게 풀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1) 듣기 및 말하기

듣기 및 말하기 유형은 총 17문항 중 15문항이 모두 <고교영어듣기>에서 연계되어 출제되었다. 6번 문항은 <고교영어듣기> 6강 1번 문항의 그림 상황을 비슷하게 활용하고 내용과 표현을 달리하여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는 동일한 유형으로 출제되었다. 9번 문항은 <고교영어듣기> 12강 2번 문항의 동물원 관람권 구입 내용을 놀이공원 이용권 구입으로 바꾸어 지불할 금액을 고르는 동일한 유형으로 출제되었다. 11번 문항은 <고교영어듣기> 22강 7~8번 1지문 2문항의 미술관 자선 행사 내용을 활용하여 담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유형으로 출제되었다.

(2) 대의 파악

대의 파악 유형은 EBS 교재의 지문을 그대로 활용하지 않고, 교재의 소재나 주제를 활용하여 출제된 점에 주목해야 한다. 18번 문항은 <영어독해연습1> 9강 Exercise 6의 봉급 인상과 경영대학원 등록금 보상 요청이라는 소재를 활용하여 글의 목적 유형으로 출제되었다. 19번 문항은 <수능특강> 6강 5번의 대중 연설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소재를 활용하여 곧 연설을 하게 될 등장인물의 심경 변화를 묻는 유형으로 출제되었다. 22번 문항은 <영어독해연습1> 20강 Mini Test 2 20번의 인플레이션 소재와 지문의 일부 내용을 활용하여 제목 유형으로 출제되었다. 23번 문항은 <수능특강> 23강 2번의 문화 관광(cultural tourism) 소재를 활용하여 주제 유형으로 출제되었다.

(3) 세부 정보 파악

세부 정보 파악 유형 역시 EBS 교재의 소재를 활용하여 출제된 점이 특징적이다. 24번 문항은 <영어독해연습1> 4강 Exercise 8의 파이 그래프를 다른 형태의 그래프로 바꾸고 지문 내용도 모두 바꾸어 동일한 유형으로 출제되었다. 25번 문항은 <수능특강> 12강 3번에서 미켈란젤로가 교황 Julius II로부터 자신의 무덤을 설계해달라고 부탁받은 내용을 연계하여 교황 Julius II의 무덤에 관한 내용 불일치 유형으로 출제되었다. 26번, 27번 두 문항은 모두 수능특강 9강 5번과 9강 3번의 소재를 활용하여 동일한 유형으로 출제되었다.

(4) 어법, 어휘

어법과 어휘 문항은 모두 EBS 교재의 지문을 그대로 활용하여 출제되었다. 28번 문항은 <영어독해연습1> 14강 Exercise 6의 글의 순서 문항이 어법 유형으로 출제되었다. 29번 문항은 <영어독해연습2> 12강 Exercise 2의 문장 삽입 문항이 문맥에 맞는 낱말 고르기 유형으로 출제되었다.

(5) 빈칸 추론

빈칸 추론 유형 4문항 중 3문항이 EBS 교재 지문 그대로 연계되어 출제되었다. 31번은 <수능특강> Test 3 20번의 글의 순서 문항이 1단어 빈칸 추론 유형으로 출제되었고, 32번은 <영어독해연습2> 15강 Mini Test 2 1번의 어법에 맞는 표현 고르기 문항이 어구 빈칸 추론 유형으로 출제되었다. 34번은 <영어독해연습1> 15강 Exercise 3의 문장 삽입 문항이 연결사 추론 유형으로 출제되었다.

(6) 간접 쓰기

간접 쓰기 유형 역시 총 6문항 중 4문항이 EBS 교재 지문 그대로 연계되어 출제되었다. 35번은 <수능특강> 25강 3번 글의 주제 문항이 무관한 문장 고르기 유형으로 출제되었다. 36번은 <영어독해연습1> 20강 Mini Test 2 16번 연결사 유형이, 37번은 <영어독해연습2> 3강 Exercise 7의 빈칸 추론 문항이 모두 글의 순서 고르기 유형으로 출제되었다. 글의 순서 고르기 유형으로 출제된 문항에서 글의 순서를 명확하게 해주기 위해 원문의 일부가 변형되었다는 점이 눈에 띄어볼 만하다(36번 (A) In the same way → Like those infections diseases, 37번 (B) The reason is this: 추가). 39번은 <영어독해연습1> 14강 Exercise 3의 글의 순서 고르기 문항이 문장 삽입 유형으로 출제되었다.